

전주發 드론축구,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국내에서 세계로’

세계 유일한 드론축구 전용구장인 드론스포츠복합센터의 건립이 시작됐다. 앞으로 드론스포츠복합센터에서는 '2025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시작으로 국내외 각종 드론축구 대회가 자연스럽게 치러지면서, 명실공히 세계 드론축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다.

▲드론축구 중주도시 재확인

전주시는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중주도시의 지휘와 세계 유일의 드론축구 전용구장이라는 양 날개를 갖췄다. 오는 2025년 10월 예정된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이 열린 양 날개를 세계에 알릴 기회까지 거머쥔다.

시는 '2024 국토부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초중고교 대상 드론축구리그 활성화 및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초중고 각 5개 신청팀은 드론축구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드론축구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확산세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 각종 대회도 구상하고 있다. 작게는 전주권역에서 전북권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크게는 전국대회를 통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드론축구가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또한 드론축구월드컵을 한번 여는 이벤트성 대회가 아닌 지속되도록 힘쓰고, 그 외에도 대륙별 대회를 구상하는 등 전주시의 드론축구의 위상 및 저변 확대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드론레저스포츠 및 드론산업의 고도화

전주시는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를 통해 유소년 드론축구공 '스카이리-에보'를 전 세계에 공개했다. Made in 전주'를 달고 출시된 스카이리-에보는 전주의 주력산업인 탄소소재로 가드를 장착했고, 자율주행 및 터보 기능 등 각종 기술력이 총망라됐다.

이어 스카이리-에보의 개발사인 캠틡종합기술원은 미국·캐나다와 5만 대(총 60억원 규모)의 수출 의향서(LOI)를 체결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수출 계약은 제품양산, 국내 시장테스트, 인증 절차를 거쳐 미국과 캐나다의 학생들에게 인도된다.

유소년 드론축구공 수출은 드론축구가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첫 사례다. 시는 드론축구가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당장 드론축구볼과 전용 경기장 성능개선과 경기운영 시스템 등 고도화를 통해 내수시장과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캠틡종합기술원과 함께 추진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장비 내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부지에서 열린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사업 착공식이 열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드론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드론축구 중주도시·전용구장 '양 날개'… 산업 고도화 도모

드론스포츠센터 시작으로 실내체육관·육상경기장 야구장·국제수영장 등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다양한 체육시설 집적화

구성 강화를 위한 소재 및 디자인 개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드론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비 30억원을 확보해 기초성된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드론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K-드론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외 드론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드론축구의 저변이 확대되면 관련 경제 규모도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응해 시는 올해만 113억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과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드론 레저 스포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와 스포츠의 만남,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속도'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세워질 드론스포츠복합센터 조감도.

전주시는 내년 2월 드론스포츠복합센터 완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는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시작으로 전주실내체육관(2026년 완공)과 전주육상경기장(2025년 완공), 전주야구장(2025년 완공), 장애인체육복지센터(2027년 완공), 국제수영장(2028년 완공)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집적화된다.

시는 앞서 이러한 계획을 담은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드론스포츠복합센터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이 열리면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기존 축구와 야구, 육상 등의 스포츠는 물론, 드론레저 스포츠산업의 고도화와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드론축구를 즐길 수 있는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040년까지 이 일대를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해서 전주 대변역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 없이 달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우범기 시장의 포부

드론축구 출발 성장 이끌겠다



"전주는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전세계에 알려온 중주도시입니다. 드론축구의 시작을 함께한 전주는 이제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전용구장을 건립함으로써 드론축구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매력적인 레저스포츠로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사진)은 "오늘 첫 삽을 뜬 드론스포츠복합센터는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전용구장이자 오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주무대로 활용될 드론축구의 성지가 될 것"이라며 "이곳을 전세계인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드론축구의 상징과 같은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 드론축구월드컵 주무대 누구나 즐기는 드론축구 상징"

우 시장은 또 "이와 더불어 드론스포츠복합센터가 들어설 전주월드컵경기장과 호남제일문 일대를 건강과 젊음이 가득한 곳, 관광객들이 더 많은 돈을 쓰는 체류형 관광지, 많은 선수와 동호인들이 훈련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라며 "전주는 이를 통해 쾌거와 열정, 가능성과 희망으로 넘쳐 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 시장은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비롯한 호남제일문 대표관광지 조성, 완산철봉 관광 명소화사업, 덕진공원 관광지 육성, 왕의공원 프로젝트, 아중호수 관광개발 등 거점별 도시성장 핵심공간 조성을 위한 6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주의 큰 꿈을 실현하고 전주의 대변역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